

“신군부의 유산 ‘바살협’ 지원 중단하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내일 광주서 전국회원대회

광주시 행사 지원금 3억원

시·자치구 매년 3억원 지원

시민사회 “5·18정신 모독” 반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군사 정권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출범한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 예산 수억원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 반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광주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가 바르게살기운동광주시협의회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행위는 광주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고 5·18 정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24일 주장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오는 26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2019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시회의의 동의를 받아 이 행사가 시비 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26회를 맞는 ‘전국회원대회’는 그동안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회를 치러왔고, 광주에서는 처음이다.

단체들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초헌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출범시킨 사회정화위원회가 그 전신”이라며 “사회정화위원회는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이 취약한 5공화국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위기구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은 이 위원회를 통해 기성 정치인 검거를 비롯해 공작자

5000여 명을 퇴출하고 교육공무원 611명·언론인 715명도 해직했으며,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학생 1000여 명을 강제 제적 및 입대를 주도했다”면서 “1980년 말에는 순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3만 8000여 명을 삼정교육대로 강제 입소시켰고, 사회악을 척결한다며 5만 7000여 명을 특별검거하는 등 전두환 철권통치를 위해 초헌법적 횡포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1988년 13대 국회에서 열린 ‘5공 비리 청문회’로 사회정화위원회 실상이 세상에 알려져 단체가 해산됐지만, 두 달 뒤인 1989년 4월 사회정화위원회의 조직·인원을 흡수해 만든 단체가 지금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라며 “그런데도 이 단체의 30주년을 자축하는 행사에 3억 원이나 되는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전국 회원대회 지원금 3억 원을 제외하고도, 광주시를 비롯해 5개 자

치구의 혈세가 해마다 ‘바르게살기운동광주광역시협의회’ 운영과 사업비 명목으로 3억원 가깝게 지원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 시민들이 바르게살기 전국 회원 행사의 축하 공연비와 기념품 값까지 대야 하다니, 실로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광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지원 근거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육성법 자체가 독재 권력과 결탁해 얻은 특혜”라며 “육성법은 필요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 무조건 지원하라는 강행규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민사회는 유신 정권의 잔재 ‘새마을회’와 관련, 지난 2017년 각 구청이 새마을회를 개양하지 않도록 촉구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매년 집행되던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를 이끌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4일 광주시 북구 고려고등학교 앞에서 전교조 광주지부 등 26개 교육시민단체가 시험지 유출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학부모들(뒷줄)이 이에 반발하는 맞불 집회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내신 몰아주기 고려고 적반하장 중단하고 광주시민에 사과하라”

교육·시민단체 규탄 회견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시험문제 유출과 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사태가 불거진 고려고등학교를 규탄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YMCA·광주YWCA 등 지역 2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성적차별·평가부정 고려고 사태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고려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고는 불공정 평가와 성적상위권 위주 학사 운영, 적반하장 대응 등을 즉각 중단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마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사과와 변명만이 일관하고 있다”며 “고려고 사태는 입시 위주 학사 운영이라는 관행 문제가 아니라 최상위 소수를 위해 대다수 학생을 들러리 이상의 피해자로 만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고려고 측에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길 바라며 징계, 상위권 위주 학사운영을 유발한 기숙사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반발하는 고려고 학부모들이 맞불 집회를 열고 “시험문제를 문제집에서 출제하는 사례 등은 공립학교에서도 비밀비자함에도 교육청이 고려고에만 강압적인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지역 CCTV-경찰 연계 수배차량 신속 적발 시스템 구축

스마트도시 안전망 업무협약

광주시 관할 CCTV와 경찰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을 연계해 범행 수배차량을 보다 신속하게 적발하는 안전 시스템이 구축된다.

광주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업무협약을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는 서울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도 참여한다.

업무협약은 국토교통부가 광주시와 서

울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를 긴급 수배 차량 검거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시로 선정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가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방법·방재·교통 관리 목적의 정보처리 시스템)과 경찰청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은 상호 연계된다. 광주시나 5개 자치구가 대로나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CCTV(내년까지 400여대)에서 수배차량이 발견될 경우, 실시간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경찰은 그동안 살인, 납치, 강도 등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차량 검거를 위해 경찰서 단위로 검색해 타 관내 진입 시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광주시는 앞서 울출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하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CCTV 실시간 영상정보를 법무부로 제공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2 달뜨기 01:47
해질 18:26 달뜨기 16:19

기름 구름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광주	구름 많음	15/25	보성	구름 많음	11/24
목포	구름 많음	16/25	순천	구름 많음	15/26
여수	구름 많음	18/24	영광	구름 많음	13/25
나주	구름 많음	12/25	진도	구름 많음	13/25
완도	구름 많음	15/25	전주	구름 많음	14/26
구례	구름 많음	12/25	군산	구름 많음	13/25
강진	구름 많음	13/25	남원	구름 많음	11/25
해남	구름 많음	11/25	축산도	구름 많음	17/22
장성	구름 많음	12/2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 생활지수

- 주요: 식중독
- 높음: 자외선
- 보통: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31	10:39
16:26	23:41	
여수	00:17	06:13
	12:09	18:51

◇ 주간 날씨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10/1(화)	2(수)
☁	☁	☁	☁	☁	☁	☁
17/27	18/25	19/26	19/27	18/27	17/27	17/27

을 낚시배 불법행위 391건... 지난해보다 2.2배 증가

음주운항도 40% 늘어

낚시 예능프로그램 인기 등으로 낚시 인구가 늘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낚시배 출항척수는 총 36만343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만4005척)보다 19.6% 늘었다.

올해 적발된 낚시배 불법행위(391건)도 지난해(172건)보다 2.2배 증가했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구명조끼 미착

용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해 외출 불법조업(26건), 출·입항 허위신고(14건), 정원초과(13건), 불법 증·개축(12건) 순이었다.

지난 1월 통영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충돌해 5명이 사망한 무적호 사고도 영해에서 18km 벗어난 낚시 금지 구역에서 발생했다.

음주운항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8월 전국 일제 음주운항 단속 결과 67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47건) 대비 42.5% 증가한 수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최초 매입형 유치원 교명 ‘새미르유치원’

광주 최초 매입형 유치원의 교명이 ‘새미르유치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제1호 매입형 유치원인 가정 ‘신용2 유치원’ (현 사립 한스유치원) 교명 새미르유치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미르유치원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돼 내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광주시 북구 신용동에 들어선다.

학부모와 시의원,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립학교 개교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용’의 순우리말인 ‘새미르’로 교명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공공 개원모형 교명 64건 중 지역성·상징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광주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광주시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